

전남-제주 '무인도' 관할권 분쟁

완도군 '장수도' 관할수역 주장 제주도 권한쟁의 심판소송 제기

완도군과 북제주군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무인도 소유권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완도군, 제주도와 북제주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이 무인도를 완도군은 '장수도(鎭水島)', 북제주군은 '사수도(泗水島)'로 각각 달리 부르고 있다.

이 섬은 완도 소안도에서 28.89km, 제주 추자도에서는 35.18km 각각 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완도군 관할 수역으로, 말을 때는 200여척의 어선이 고기를 잡아온 완도의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관할 구역 변경을 주장하며 2005년 11월30일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남도와 제주도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장수도 주변 해역에서 지역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전남도 어업

지도선(전남201호.115t)과 완도군 어업지도선(전남211호.24t)을 파견해 합동으로 조업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장수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전개해 지역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지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추자면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수도가 추자면 관할권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주민 1천878명이 연명서와 탄원서와 지역 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추자면 주민들은 "사수도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추자도의 관할권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와 일본의 일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등이 기술돼 있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무인도를 둘러싸고 4년여 동안 끌어온 분쟁은 조만간 현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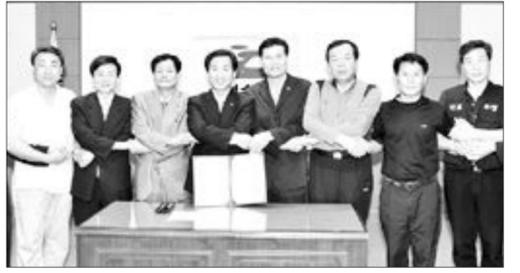
여수 시내버스 파업 극적 타결

임금 인상 합의 파업 철회 여수시, 인상분 7억원 지원

임금 인상 문제로 파업을 결의했던 여수시내 버스노조가 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여수시내 버스노조와 사측은 1일 여수시청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노조가 주장한 임금인상률(기본급의 10.6%)을 수용하는데 합의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7억원의 예산을 사측에 지원해 임금을 인상토록 하고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준공영제 요구에 대해 내년 말쯤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오동운수와 동양교통, 여수여객 등 3개 시내버스회사 노조는 지난달 27일 올해 기본급의 10.

6% 인상과 현재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여수=박왕규기자 ykpark@

3M 산업용테이프 라인 준공 1일부터 나주공장 본격 가동

한국 3M 나주공장이 지난 1일 산업용 테이프 생산 공정인 'AF3라인'을 준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일 나주시 문평면 제 1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신정훈 나주시장, 호아킨 델가도 미국본사 전자제품사업부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전화와 터치 스크린 등에 쓰이는 산업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AF3라인은 100여원이 투입됐다.

한국 3M 나주공장은 1990년 첫 공장 가동 이래 제 7공장까지 증설, 7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담양 명품 '대숲맑은 멜론' 담양에서는 요즘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대숲 맑은 멜론' 수확이 한창이다.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대나무골 멜론사업단(단장 강동인)에서 부녀자들이 수확한 멜론을 당도와 크기별로 선별해 포장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해남 울돌목서 명랑대첩축제

내달 11일부터 4일간

해남군이 오는 10월 11일부터 4일간 울돌목 일대에서 '평화와 상생'을 주제로 명랑대첩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백의종군 릴리', '1만명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명랑대첩 재현극', '십리 강강술래', '명랑 21품 마당놀이', '울돌목 바다체험', '국제 국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 때는 울돌목에 거북선 쿠르즈 유람선이 뜨고 명랑해전 당시 선 보였던 관옥선과 안택선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또 각종 공연을 위한 수반 무대와 2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비롯해 주차장, 전통 옹기전, 대장간 등을 갖춘 우수영 민속촌도 조성된다.

한편 올해 명랑대첩 축제는 전남도 축제로 승격됐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전남 일부 해수욕장 폐장 늦춰

늦더위 이어져...완도 명사십리 등 이번 주 까지 운영

완도 명사십리와 신안 우전 해수욕장 등 전남도내 해수욕장 6곳이 9월 초에도 문을 연다.

전남도는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했으나 도내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수온이 따뜻해 데다 최근 늦더위가 이어져 폐장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안 원평·하늬곶 해수욕장은 4일까지, 신안 시목둔덕 해수욕장은 5일까지, 완도 명사십리와 신안 우전 해수욕장은 7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

난 6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해 올해 가장 늦게 폐장하는 국내 해수욕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처럼 개장을 앞당기고 폐장시기를 늦추면서 올 여름 전남지역 62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550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8만8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완도군이 157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군 71만5천명, 해남군 64만5천명, 보성군 55만2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함평군 녹비작물 무상 공급

함평군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과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4천584ha의 면적에 녹비작물을 재배키로 하고 농가에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6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희망농가 3천여가구에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재배 면적은 자운영 2천259ha, 헤어리베치 1천825ha, 클로버 500ha 등 총 4천584ha이며 마을 단위 공동작업단을 편성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 재배하는 녹비작물은 토양에 유기질을 공급해 지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4~5월께 꽃이 활짝 피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원관광단지 투자해 볼까"

서울 설명회 200여명 성황

인공해수욕장인 블랑코 비치와 개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해남 화원관광단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린 화원관광단지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전국에서 30여명의 투자자들이 투자사를 나타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국내외 투자회사와 개발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화원관광단지는 블랑코비치 인공해수욕장 개장에 이어 다음달 골프장(9홀)도 문을 연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원산지 표시 단속 MOU

장흥의 재래시장인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이 원산지 표시 단속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상인회는 최근 전통시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원산지 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과 MOU를 체결했다.

완도지원은 정남진 토요시장을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배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완도군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완도군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2006년 약산 관산독암마을, 2007년 군외 신화마을 선정에 이어 2009년 개발사업 대상지로 신지면 명사십리 마을이 유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농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인근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소독시설 지원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전개한다.

약산 관산독암 마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 삼문산 진달래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신화마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전통과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농촌으로 만들 계획이다. 2009년도 사업 신청자인 신지면 명사십리 마을은 대평·내정·임촌·신리 등 4개마을로 이뤄져 있으며, 551가구 1천2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양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7년 역사의 전통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제1호 묘지 분양 05-379-0100, 010-773-4004, 010-773-0100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닝네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초슬림!!**

585-KBC '사랑세상 방영'

귀여운 분위기와 인격을 보여주는 **행동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52-873-5858, 672-4622) / 011-607-5300